

미국 221년만에 매미 떼 수백兆 마리 출현 예고

제트기급 소음...매미 7종 여러 장소에서 첫 동시 활동 1803년 이후 13·17년주기...일리노이 등 중남부 집중

미국에서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 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돼 미국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곤충학자들은 이달 말부터 올여름까지 주기성 매미(periodical cicada) 2개 부류가 함께 지상으로 올라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매미는 각각 13년 주기(Brood X IX)와 17년 주기(Brood XIII)로 땅속에서 거어 나오는 무리로, 미국에서 이 두

부류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재임 시기 이후 처음이다.

13과 17은 1과 자신 이외의 자연수로 나뉘지 않는 소수(素數)여서 최소공배수인 221년이 동시 출현 주기가 된다.

올해는 이 두 부류에 포함된 매미 7종이 여러 다른 장소에서 한꺼번에 출현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년 여름 흔히 볼 수 있는 매미들과 달리, 붉은 눈을 지니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추위를 피하

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 유충 시절을 보내다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다.

코네티컷대의 곤충학자 존 콜리는 이번에 나타날 현상을 매미와 아마겟돈을 합친 '매미-갯돈'이라고 부르며 전체 개체 수가 수백조 마리, 어쩌면 1천조 마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매미들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은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위스콘신주에서 루이지애나주, 워싱턴DC 옆 메릴랜드주에서 조지아주 사이에 이르는 중부와 동남부 지역이다.

전체 16개 주에 걸쳐 에이커(약 4천47㎡)당 평균 약 1백만 마리가 뒤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미들은 땅의 온도가 섭씨 17.8도까지 따뜻해지면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미국에서 17년 주기로 출현하는 '브루드 X' 매미 떼.

기후변화로 인해 이 시기가 예전보다 앞당겨지는 추세라고 곤충학자들은 설명한다.

매미들은 새들에게 이상적인 먹이

며, 인체나 농작물에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큰 울음소리 탓에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소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문

제가 있다.

곤충학자 콜리는 "매미 떼가 내는 소리가 110데시벨에 달한다"며 "마치 제트기 옆에 머리를 대는 것과 같다.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007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음악축제인 라비니아 페스티벌은 17년 주기 매미 출현으로 인한 소음을 우려해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워싱턴DC 인근 테레스 국제공항에서 백악관 취재단 전세기에 매미 떼가 날아들어 외부 장비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다.

학계는 221년 만에 재현하는 자연 현상에서 여러 진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흥분해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타구란당섬 시타로에서 사람들이 바다 건너 루앙 화산의 분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고수준' 경보 인니 루앙 화산 분화

당국, 대피 독려...화산 분괴되면 쓰나미 발생 우려도

대규모 분화에 '최고 수준' 화산 경보가 발령된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이 며칠째 분화를 계속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루앙섬에 있는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분화를 시작해더니 지난 17일 밤 크게 폭발했다. 이후 이날까지 크고 작은 분화들이 계속되면서 하늘로 화산재를 뿜어내는 상황이다.

현지 콤포스TV는 하늘에서 떨어진 화산 파편들로 인해 지붕이 부서지고,

건물과 도로 등이 온통 회색 재로 뒤덮인 모습을 보도했다.

이번 화산 폭발로 루앙 화산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북술라웨시주 주도 마나도 국제공항이 지난 19일까지 폐쇄됐고, 인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에서도 일부 노선이 화산재의 영향을 받아 항공기가 취소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분화구 중심으로 반경 6km 이내 지역 내 접근 금지령을 발령했고, 루앙섬을 비롯해 인근 주민 1만1천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당국의 명령에도 2천여명만 이를 따랐고, 나머지 주민들은 여전히 자택에 남아 있어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때문에 재난 당국은 화산재로 인한 호흡기 문제를 우려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독려 중이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재난당국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화산청은 계속된 분화로 화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며 화산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기시다,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2021년 취임 이후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 봉납해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일컫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해 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2일까지 열리는 올해 춘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

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공습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습해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가자 민방위대에 따르면 전날 밤 라파 서부 텔 술탄 지역의 주거용 건물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다.

이 폭격에 어린이 6명과 성인 여성 2명, 남성 1명 등 총 9명이 숨지는 등 하루 사이 가자지구에서 총 37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선 3만3천명이 훌쩍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 하루에 약 180명꼴로 사망한 셈이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1만3천명을 넘고 여성이 약 8천4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에 달한다. /연합뉴스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중 인터넷서 인기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가 대나무에서 죽순을 찾아 먹는 영상과 사진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바이두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 속에는 긴 대나무에서 죽순을 꺼내 먹고 있는 판다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영상 속 판다는 앞에 놓인 굵고 긴 대나무를 번쩍 들어 어깨에 멘 뒤 옆으로 돌리며 이리저리 살피더니 곧바로 입으로 뜯어 죽순을 꺼내 맛있게 먹었다.

누리꾼들은 이 모습이 흡사 판다가 대포를 조준해 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색소
무향료